大韓電氣學會의 새로운 役割

韓萬春 (會長·延世大學校 産業大學院長)

解放後 混乱期에 発足한 本學會는 四半世紀를 지나는 동안에 歷代 會長님을 비롯한 先輩 任員과 會員諸位의 労苦의 結晶으로 相當한 発展을 이룩하였다. 그 발자취는 이미 発刊된 電氣學會 25年史에서 밝히듯 定期的와 學會誌発刊·세미나 및 學術発表會 開催, 用語集 및 電氣工學便覽発刊, 調査事業 및 規格制定 六個支部活動等 적어도 國內의 工學系의 다른 學會에 比하여는 遜色이 없는 発展을 하고 있다고 自負하지만 아직도 더욱 発展할 餘地가 많다.

오늘 總會에 이어 2日間에 걸쳐 學術発表會를 갖는데 있어서 理論的인 學術発展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當面한 重化學工業発展, 에너지 및 資源危機克服

및 工業敎育改善等에 있어서의 여러 問題点에 對하여 關係當局 및 業体와 學會의 專門家 여러분의 發表를 듣고 討議의 廣場을 갖이므로서 産業協同体制를 強化하는 것도 今後의 發展을 爲한 試図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昨年에 우리가 經驗한 石油波動을 비롯한 所謂 Energy shock 와 原資材 品貴現象은 全世界에 큰 衝擊을 주었으며 地球上에 局限한 資源의 節約과 效率的인 利用 및 새로운 可用資源 發掘이라는 大命題가 우리 技術人 앞에 놓여져 있다.

特히 아직도 여러 面에서 後進性을 克服하는 過程에 있으며 앞으로의 成長을 爲하여 努力하여야 하는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큰 試鍊이라고 아니할 수 없으며 우리 電氣技術人의 責任 또한 重且大라고 하겠다.

이런 與件에서 우리나라의 電氣學徒와 電氣技術人의

總集結体인 우리 學會는 이번 總會를 契機로 大同団結하고 그 活動을 더욱 強化하므로서 電氣技術人의 存在를 뚜렷히 하는 同時에 우리나라의 發展에 寄與하는 姿勢를 一層 더 가다듬어야 되겠다.

이에 있어서는 昨年 여름 江陵에서 열린 産業協同세미나에서도 言及한바 있지만 새로운 時代에 適應하는 새로운 役割을 學會가 맡도록 하여야 할 것인데 이에는 우리나라에서 必要한 電氣界의 技術情報와 技術發展의 媒体로서의 學會誌 內容의 刷新, 調査 및 發表活動의 強化, 會員数 增加 및 積極参與 模索, 国際交流의 促進 및 産業協同体制의 強化等이 이루어져야 할것이며 任員 및 會員一同의 倍前의 努力으로 아래와 같은 目標를 向해서 나갈때만 可能하다고 할 것이다.

1. 우리나라의 産業發展과 直結되는 學會로.

2. 會員이 보람을 느끼고 도움이 되는 學會로.

3. 國際的인 廣場에서 特色이 있는 學會로.